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릎은 여름, 더위에 지쳐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마 16:24). 십자가에서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막 1:38).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변함없이 진행될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꼭 나오셔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고 후 2:15)가 진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김성관 위임목사

과거는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거를 잊어버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겹옷을 때의 수치를 짓고 과부 때의 직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사 54:4). 어두웠던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빌 3:13~1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화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라"(사 54:5~9).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로 5:8,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그러나 전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공화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0).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로 8:38~39).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다음 호에 계속)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2009년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유이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MESSAGE TO THE EPHESIAN CHURCH

⁽¹⁾“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 One who holds the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the One who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lampstands, says this: ⁽²⁾‘I know your deeds and your toil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cannot tolerate evil men, and you put to the test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they are not, and you found them to be false; ... ⁽⁷⁾‘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eat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Revelation 2:1~7)

In Jesus Christ's revelation, He addressed seven actual churches out of the many that existed and flourished during John's day with a different message for each one. These seven churches represent types and conditions of churches, families, and individuals in all generations. As the seven selected churches needed Jesus' specific message to help with their particular problems, so too do today's churches, families, and believers need His prophetic message for their weaknesses. For our upcoming church anniversary, I've chosen Jesus' message to the Ephesian church to minister to our current needs. Let's look at Jesus' message to soften our hearts and bring us closer to Him.

Jesus begins His message to the Ephesian church with praise,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 One who holds the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the One who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lampstands, says this: 'I know your deeds and your toil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cannot tolerate evil men, and you put to the test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they are not, and you found them to be false; and you have perseverance and have endured for My name's sake, and have not grown weary'" (Rev. 2:1~3). This church has done some good ministry work. Jesus praises their positive points, which is really a good example for us all to follow in our dealings with others. Not many in today's church kick out the evil-doers, especially if they are rich, famous, or politically connected. This church took God's word seriously, and didn't put up with evil people. They got rid of them for Jesus' sake, not for their church name or for personal reasons. They stuck to the gospel. They were Jesus-centered, not human-centered. Their congregation was unified in faith. They emphasized the cross and the greater need for missionary work. They helped the poor and prayed for God's direction. They were humble, and praised God,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Finally, brethre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of good reput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dwell on these things" (Phil. 4:4~8). This church had peace because of its many godly practices.

After His praise, Jesus mentions this church's problem,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Rev. 2:4). From the outside, this church appeared beautiful, but they had a serious problem. The problem in this church was declining love.

When love diminishes in our walk with God, then we tend to stray from Him. It's important to face up to our problems. When our devotional life suffers and no longer takes priority, then compromising becomes common. We start to toy with temptation. We start to make big deals out of the wrong stuff. Instead of gaining holiness, we start to lose it. This is so sad! It's very similar to the love in a marriage. Most all newlyweds start out with great passion, but as the years go by too many couples let their love become a duty instead of a desire. Duty replaces delight, and soon you find two people merely enduring until the end. My dear friend, when love fades everything becomes mechanical. In church, I see too many people attending but giving little attention. Their religion has become an exercise in routine, without heart. Jesus saw this problem and pointed it out to the Ephesian church, so that they could change and experience the blessing of real love. Christians need to experience greater sweetness and satisfaction as the years go by, not less.

Jesus reveals the prescription for revival in this church, "Therefore 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I am coming to you and will remove your lampstand out of its place-unless you repent. 'Yet this you do have, that you hate the deeds of the Nicolaitans, which I also hate'" (Rev. 2:5~6). Jesus told the Ephesian church to remember, repent, and return. He wants them to think back on how good they had it. No human can take a higher or better place than as a loving Christian. Do you remember the times of great gratification in your Bible reading, prayer life, and godly service? Jesus wants us to remember, and then repent. He wants us to turn around from where we are now and go back to those special times. We need to make an about-face and return to the loving Christian person who glorifies God and makes a difference in this sinful world. We need to return to that first-love feeling. Our church, our families, and each individual believer needs to go back. Declining love is so sad, but restored love makes us glad. Revival awaits those who remember, repent and return.

My dear friends, please open your hearts and listen to what Jesus tell us,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eat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Rev. 2:7). Our church anniversary is approaching, so let's remember the greatness of God's love and repent of our shortcomings, and return to His grace with wonderful passion and zeal. Look to Jesus now and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step by step with faith only. We can overcome with faith in Jesus. Amen. 🙏

다음 주일 설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7)



김성완 목사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고 성장했던 일곱 교회를 향해 각각 다른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곱 교회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교회, 가족, 각 개인들의 유형과 조건들을 대표합니다. 선택된 일곱 교회들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특별한 편지가 필요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들, 가정들, 신자들 역시 각각의 연약함을 도와줄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설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현재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칭찬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 2:1-3).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예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행악자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부자이거나 유명인 또는 정치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행악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명예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4-8).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문제를 지적하신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나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겉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식여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 괴로워서 더 이상 믿음이 삶의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도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록함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에서의 사랑과 매우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부른 꿈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많은 부부들이 열정 대신 의무감으로 변질된 자신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 대신 의무감이 자리 잡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지 끝날 때까지 참고 있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을 때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진심은 없고 판매 박힌 듯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일시적인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보셨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어 참 사랑의 온종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사랑과 속죄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깨우치신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리라”(계 2:5-6).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사랑의 그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기도의 삶을 살면서, 경건한 봉사를 하면서 참기쁨을 누렸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그 특별한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최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 그리고 개개인의 신자들마다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식여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사랑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부흥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교회설립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음씩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

성경이 답이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12)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임에도 고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던 모습을 회개하자.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자(호 6:1, 14:1).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를 심자(호 6:3).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한다.

무엇이 묵은 땅인가? 묵은 땅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다(호 1:2).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다(호 1:6~10). 한 때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었다. 비록 실수를 반복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으며 회개하였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타락한 죄로 가득한 묵은 땅이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계 2:4~5), 거짓선지자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두아다라 교회(계 2:23~25), 형식적이고 행한이 없는 믿음뿐인 사데 교회(계 3:1,3)와 같았다. 참 회개 없는 이스라엘은 묵은 땅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 묵은 땅이 된다. 항상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산다. 은총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과 가까이 있음에도 무감각하다. 묵은 땅에

는 생명이 없다.

어떻게 기경하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대답은 단순하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약 1:23 ; 히 3:15). 말씀이 최고의 경기가 되어서 영원한 절망뿐인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이다(딤후 3:16~17).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갈 5:24). 평계와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자(고전 2:2).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놓지 말자(고전 4:10~13).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죄로 굳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0:11).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분명 죄로 묵은 땅이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악한 죄로 인해 찌들어 있는 묵은 땅이다. 묵은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원한 죽음뿐이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대하 7:14). 복음 안에 서자(고전 15:1~11). 미련하고 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고전 1:26~31)에 믿음으로 응답하자. 말씀에서 떠난 전통과 윤리를 만들어 불필요한 다름(막 2:23~3:6)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묵은 땅이 기경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3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15:21~32)

수님의 겸손함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막 10:45)로서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한 마리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문 밖(히 13:12) 해골을 의미하는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다(막 15:22 ; 요 19:20 ; 눅 23:33).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선, 십자가의 현장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다. 그는 십자가의 현장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아니었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심한 고문으로 지쳐 실신 직전의 예수님을 대신하여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막 15:21).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족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었다는 것이다(롬 16:13). 역리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다음, 빌라도와 로마군병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악행을 범한 죄수였을 뿐이다(막 15:26 ; 마 27:37 ; 눅 23:38 ; 요 19:19~22).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기껏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었다(막 15:24 ;

요 19:24).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이다(시 22:18).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여.”라고 욕하였다(막 15:32). 이것은 후일에 자신의 신분을 청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막 10:37)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음에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당시 사람들의 이중성을 대변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막 5:23,28, 6:56)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경의 예언(에 2:15 ; 시 22:7, 109:25)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통회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던 종교지도자들도 자신이 연구했던 성경대로 예수님을 회통하였다(막 15:31).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구레네 시몬, 로마군병들,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만한 분으로 인정하였을 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중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고난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에 1:12). 예수님이 대답이고 진리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총책 교회주말전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거은 찬송, 마음 다한 기도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교구별로 모여 기도하고 전도회 별로 돌아서 전도를 실시한다. 교회를 나설 때 역수같은 비가 내린다. 우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사서 쓰고 길 건너 편의 교구 전담 전도 지역으로 향한다. 주님은 항상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신다. 작은 공간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갑작스런 장대비를 맞는 사람과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주님을 전한다. "총현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 잘 읽어 보세요." 전해주신 전도지와 <주간총현>을 들고 급하게 가는 영혼을 향해 짧게 기도한다. "주님, 비 오는 아스팔트에 주님 말씀 버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라소서."

여름날의 오후는 수은주를 많이 올린다. 주택가에서 만나는 분마다 땀이 흐른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들은 시원하다. <주간총현>을 받아든 손끝은 뜨거운 오후의 햇볕을 가리려고 올리지만 두 눈동자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아스팔트에 떨어진 전도지와 <주간총현>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파되도록 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교회주말 전도 후에 베드로전도와 월례회를 갖는다. 계속되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다.

김대환(집사, 14교구)

망금 어장을 가다

3개월 간의 영적 무장으로 하나가 된 팀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첫날은 밤늦게 도착하여 숙소를 잡지 못하여 겨우 밤 12시 반이 지나서야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사역이 시작되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 영혼들을 만났을 때 회개가 나왔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왔고 그 순수함과 맑은 영혼, 때묻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을 외칠 때 눈물이 쏟아졌다. 말씀을 들으려 물러드는 영혼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두 손 들어 "주님! 이곳에 빨리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 영혼들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속히 하라소서." 영혼의 고백이 터져나왔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사역이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때와 같은 순수함과 때 묻지 않은 영혼과의 만남은 처음이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겠다.

만정숙(집사, 24교구)

다음 추수꾼을 빨리 보내거라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 밖을 바라보니 구름바다가 넘실대고 있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선교 여정이 하나하나 지나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매순간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늘 나의 노력과 준비로 선교에 임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팀이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의 현장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선교의 현장에는 사탄의 모습으로든, 성령의 모습으로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물 중에 하나이지 중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언행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에 불응하고 팀원을 협박하며 네 뜻을 관철하고자 하고 나만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할 때 사탄은 기뻐했다는 듯이 나와 친구하자며 달려들어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다.

경건함과 평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에게 빨리 씨를 뿌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갔다. "너희를 보기에 그 동안 함께 해서 즐거웠어. 아! 가서 다음 추수꾼을 빨리 보내줘."라고 하셨다. 주님의 음성에 정신이 반짝 들어나는 창 밖을 바라보면 "예." 하며 순종의 고백을 하였다.

남종호(인수집사, 17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8일(월) - 8월 27일(목)	18교구 4팀	박미련
8월 20일(목) - 8월 27일(목)	예바다부 1팀	윤영범
8월 21일(금) - 8월 29일(토)	15교구 2팀	이병근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21교구 2팀	박영근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18교구 3팀	김영환
8월 11일(화) - 8월 19일(수)	10교구 3팀	최영인
8월 14일(금) - 8월 21일(금)	7교구 2팀	이연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6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3일(월) - 8월 12일(수)	21교구 1팀	임연수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종동2부 4팀	남윤철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종동2부 5팀	함윤자
8월 4일(화) - 8월 12일(수)	고동부 4팀	홍순길
8월 4일(화) - 8월 12일(수)	대학부 9팀	문종인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3교구 1팀	한홍연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3팀	임광진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4팀	정재영
8월 5일(수) - 8월 13일(목)	7교구 3팀	박석산
8월 5일(수) - 8월 13일(목)	4교구 3팀	김요한
8월 6일(목) - 8월 14일(금)	8교구 2팀	이경환
8월 6일(목) - 8월 14일(금)	11교구 3팀	김동휘
8월 6일(목) - 8월 14일(금)	23교구 2팀	문경안
8월 7일(금) - 8월 15일(토)	15교구 3팀	박우현
8월 8일(토) - 8월 14일(금)	청년1부 3팀	나영실
8월 10일(월) - 8월 15일(토)	고동부 5팀	박노익



평생 해야 할 것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분반공부, 미니 올림픽, 체험의 방, 선생님들의 연극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주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것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도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전도는 항상 힘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평생 해야 할 것이 전도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겨울성경학교에도 빠지지 않겠다 생각했다.

김의석(초등부)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았다. 설교가 끝나 후 공과공부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핵심적으로 배웠다. 공과공부가 끝나 후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암기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완벽하게 외워서 통과하고 점심을 먹었다. 말씀을 배우고 먹는 밥이라서 정말 꿀맛이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미니 게임을 하였는데, "예수님, 재발 이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이겼다. 모든 게임과 활동이 다 끝난 후 연극을 보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다.

박규민(초등부)

은혜로웠던 시간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체험의 방이었다. 팔도 조금 아프고 다리도 조금 아팠지만 설교시간만큼이나 은혜로웠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친구를 데려오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학교 때 친구를 데려왔으면 친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겨울성경학교도 있으니 그때는 꼭 친구를 데려와야겠다. 또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기 위하여 선생님들이 되어보고 싶기도 하다.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마음을 알 것 같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성경학교와 설교는 피곤했던 나를 자기 못하게 할 정도로 무척 은혜로웠다. 정말 이번 성경학교는 전보다 조금 더 뜻 깊은 성경학교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김은애(초등부)

성경학교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교회예배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했다. 그 다음엔 '선교지를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었다. 1시간 동안 캄보디아로 바꾼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연습하고 캄보디아 의상을 입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캄보디아어가 어려우면서도 매우 웃겼다. 다시 조금 연습하고 예배실로 돌아와 연습한 찬양과 전도시범을 발표했다.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끝나고 점심을 먹었다. 돈까스케와 과일화채가 아주 맛있었다. 놀다가 분반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소망과는 성경퀴즈를 했다. 선물도 받았다. 그 다음엔 미니올림픽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 지난 번과 똑같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달랐다. 맛이 다른 물을 먹고 누구는 어떤 맛을 먹었을지 맞추는 게임도 무척 재미있었고, 신문을 오려 말씀을 만드는 게임도 재미있었다. 끝날 때 간식도 나누어주셨다. 성경학교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김보희(초년부)

주님께 감사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선교지를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몽골 등 각 나라의 소개와 특이한 의상이 있었다. 우리 팀은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을 전도하고 찬양하는 역할로, 직접 맛있는 옷을 입고서 전도했다. 나는 찬양을 다 외워 와서 앞에 나가 자랑스럽게 불렀다. 그리고 짝과 함께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현지인이 되어 전도를 했다. 우리팀이 1등을 해서 기뻐했다. 중등부에 올라가서는 선교를 가게 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선교 가서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선교지를 향하여' 프로그램들을 마친 후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갔다. 성경 구절을 외우면 틀어갈 수 있는데 그 구절은 쉬웠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 16:1)였다. 카레, 짬두기, 수박화채, 돈까스, 감자볶음을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남긴 음식 하나도 없이 싹까 끓여 먹었다. 비록 지금은 세계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겠다.

김준호(초년부)



참 믿음의 삶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8).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했던 저는,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아내와 저는 새신자부에 같이 등록을 하였고, 이후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찬 463장)의 찬양은 저로 하여금 많은 눈물로 자복하게 하셨기에 이 때를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위임목사님을 이곳에 보내 주셨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들어 본 적이 없던 말씀과 찬양으로 묘한 영적 감성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의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많은 눈물과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해 주셨고, 뜨거운 감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좁은 길만을 택하게 하시어, 매일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두 세계를 알게 하시어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지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위에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십자가만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어주시는 그 말씀 잘 알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막 떠나기 전에 소원의 기도와 행함을 먼저 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 무슨 염치로 생각만 할 뿐이고, 해는 매정하게도 빠르게만 저물어가 짧게 남은생, 이 죄인이 많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갈 5:22)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 사명 다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팔십오 세의 갈렙처럼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고향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으니 지혜와 담력과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 사람의 가슴으로 안으며 결손과 인내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실수하여 범한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할 때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기쁨의 회개의 열매 맺음으로 성령께서 이름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의 나이를 변명치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고백하면서 참 믿음의 삶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인술

(은퇴인수집사, 예루살렘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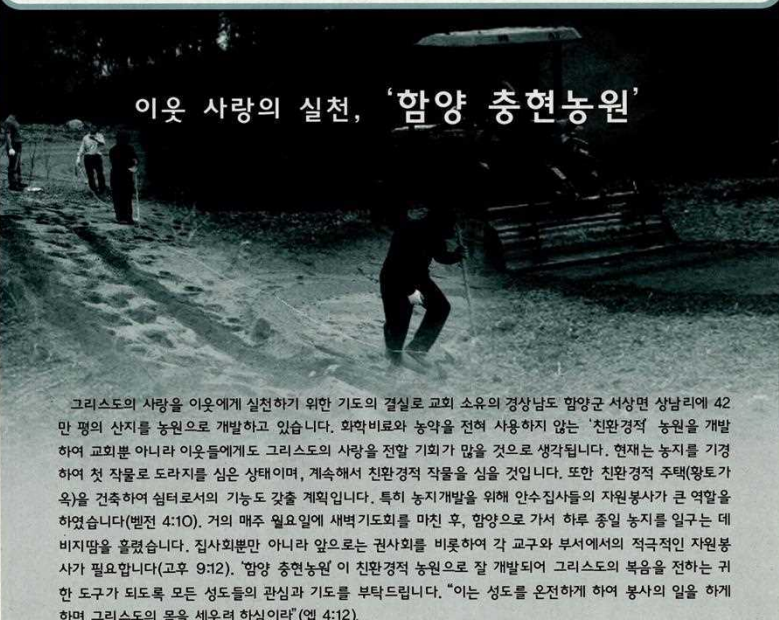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

성경은 살아 있다 The Bible is alive

"성경은 살아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와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다. 또한 성경남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분명히 깨닫는다. 성경이 내 삶에 살아 있는가? 성경의 이정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경이 삶 속에 살아 있는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게 된다.



이웃 사랑의 실천, '함양 중현농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 위한 기도의 결실로 교회 소수의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에 42만 평의 산지를 농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악비로와 농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농원'을 개발하여 교회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농지를 기경하여 첫 작물로 도라지를 심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친환경적 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적 주택(황토가옥)을 건축하여 섬터로서의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농지개발을 위해 안수집사들의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별전 4:10). 거의 매주 일요일에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함양으로 가서 하루 종일 농지를 일구는 데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집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권사회를 비롯하여 각 교구와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고후 9:12). '함양 중현농원'이 친환경적 농원으로 잘 개발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 새 가족 들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51	조진성	10	장년1부	홍희정(10)
1252	한희정	7	중등1부	이은순(17)
1253	심소연	18	청년2부	김혜자(18)
1254	진 건	13	중등1부	
1255	박예림	11	고등부	
1256	정덕환	13	고등부	
1257	홍준표	13	고등부	
1258	송현배	12	고등부	
1259	오재남	12	고등부	
1260	박창숙	11	장년4부	이인환(12)
1261	박윤정	1	청년2부	임문자(1)
1262	김원주	17	장년2부	김근아(1)
1263	권영희	19	사랑부	김현미(12)
1264	김동길	6	장년2부	이정희(7)
1265	로이	25	외선부	김정준(17)
1266	남영순	14	장년3부	박정윤(20)
1267	김정남	17	청년2부	김기홍(20)
1268	김영희	1	장년1부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남·녀 전도회장 전제월례회
일시: 23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 집사회 월요기도회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릴리홀 대상: 안수집사 전원 필참

별 세

2. 전진한 집사(마속과 관사의 남근, 21과구 역쪽2구면)
3. 6월 남근, 10월 장검
4. 조점집 사남자(마속과 관사의 남근, 조점된 성도의 부친)
5. 22과구 산양4구역, 조점된 집사의 부친 신사 성도의 시부, 19과구(2구 남근, 8구 장검)
6. 윤일집 사남자(윤병직 암자집사의 부친 - 김진화 집사의 시부, 8과구 장검4구역) 7월 남근, 10월 장검
7. 김진화 퇴교생(종종종종 종사의 의도, 2과구 전진과구) 7월 남근, 9월 장검
8. 이학동(이)창성 관사의 부친 - 김재종 집사 장검 14과구 부친과구(9월 남근, 11월 장검)
9. 강우집 퇴교생(강완계 성도의 의도 - 후가신 집사의 시부, 21과구 고강구역) 10월 남근, 12월 장검
7. 이은성 성도(한천성 집사의 남편, 이연주 집사의 부친 - 장림 집사의 장검, 6과구 장분2구면) / 11월 남근, 13월 장검

결론

1. 김성재 군(김영은 집사·이옥란 집사의 아들, 타고)과 최
운경 양(최석수 집사·김영희 권사의 딸, 17교구) / 22일
(토) 14:00, 새문안교회 본당
2. 김용희 군(김 강 집사·김정숙 집사의 아들, 타고)과 비
지혜 양(비현수 집사·김영희 집사의 딸, 23교구) / 22일
(토) 15:30, 오나로 바이 오스티업

주소변경

1. 오순도 장로·마현미 권사·오상현 집사·지은진 집사
(서초구 반포동 18-2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128동 220호, 15교구)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19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2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선교언어 훈련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9호(라오스) 510호(베트남)

후반기 수화교실 개관

일 시 : 8월 30일~12월 13일(16주간) 매주일 15:10~16:20 장 소 : 제2교육관 1층(에비다부실)

2009년도 제4차 학습 및 세레스

날짜	시간	학습자	교수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교수	유아세례자	교수
8월 16일 (수요일)	12시 15:00~15:50	기독교 계열 (강원북목사)	장준 90호	구본훈 (이광원 목사)	장준 90호	유아세례단 (박정원 목사)	장준 90호
	15:00~15:40	문단	교구별 장소	문단	교구별 장소		
8월 23일 (다음 주일)	천안교회	성신 학습 세례식(천안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장가능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림길 오후 2시 30분까지 입장가능	

2009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수업설계관공부	교과지: 9월 6일~11월 25일(12주)
- 오후 2:30 ~ 4:00	에스텔에 내린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307호)
	다나엘에 내린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307호)
	히브리서 : 아브라함에서 내린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507호)
- 저녁 6:30 ~ 10:00	베드로로주후 : 요한 일가에서 내린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307호)
교과 담당부	교과지: 9월 6일~11월 22일(12주) 장소: 제1교과관 301호, 여수일 오후 3:30 ~ 4:30
교과 담당부	교과지: 9월 6일~11월 22일(12주) 장소: 베다를, 여수일 오후 3:30 ~ 4:30
출판인도대출판	교과지: 9월 6일~11월 22일(12주) 장소: 제1교과관 407호, 여수일 오후 1:30 ~ 2:30

*교육훈련원 교육 수강신청서가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8/17~8/23)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23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정길	이순식/장경옥	송재호/양승찬	김성현/이경환	김백만/한홍연	김운창/이복순B	이희식/김정운
설 교 본 문	막 15:42-47	말 2:10-17	말 3:1-6	말 3:7-12	말 3:13-18	말 4:1-6	롬 1:1-7

예배 담당 (8/19~8/23)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8/19	수요1 수요II	영혼의 거울이 오기 전에(딤후 4:9-21) 이희석 목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요인 1:1-4) 송해조 목사	박용원 김윤찬	김윤찬 이현옥	이희선 일당합 (배호산나 찬양대) 만우의 주예(신나 찬양대)
8/21	금요찬양	김근영 목사	최강진	예루살렘 찬양대 / 중등2부 중창 / 마이올림픽 박 민	
8/23	주일 I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계 2:1-7) 양태선 목사	박용원	이성식	《예배 전 찬양》 고통의 땅에 버렸고요 / 풀꽃 바람결(임마누엘 오케스트라) 기쁘게 여러 복된 날 주마와 외 / 소르노(이화영)와 찬양대 솔리스트 너희 복을향하외 / 소르노와 주가은(이화영 찬양대 솔리스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외 / 첼로 이화영(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주일 II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계 2:1-7) 최성동 목사	강호성	이태식	
	주일 III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계 2:1-7) 김현관 목사	이희선	김태식	
	주일 IV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계 2:1-7) 유준석 목사	최강진	김영철	
	주일 V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계 2:1-7) 안일관 목사	정민권	김종구	
	주일찬양 오라 그리고 만복을 받으라(사 55:1-3) 김성관 목사		유원철	신성현	한원부 오성중창단 / 호산나 찬양대 / 고두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인과 동성동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과 동성동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찬양예배	저녁 7:30	본 당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일양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드리는 주일 9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성 · 기 · 는 · 분 · 들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6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다부	오후 12:15	감림빌딩
다부	오후 12:00	북지관 제14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오전 8:30~오후 6:00 (금)제770~제782호	선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0	배니나홀
선교부	오전 11:00	아면빌
오전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이웃이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인민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8월 총현 기도의 창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 3 춘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인의 예의(롬 12:1)가 되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단의 영육을 강권(행하 23:9)하여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모하기를 주시어,
- 5 모든 위헌의 및 부수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을 한 뜻(딤후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시어,
- 6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골 3: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권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7 1 : 1 : 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주로서 영접하게 하소서.
- 8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거선(골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전 23:9)가 되게 하소서.
- 9 교회에 귀속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5) 믿게 하시고, 예수님실린 찬양대(골 2:36)를 통하여 교묘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10 춘현의 재래(제자 : 동산 : 복자)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주시고, 헌전 주선 중인 양로원 및 남급시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11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경(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성 기 는 분 들

■ 시무장으로

[illegible]

■ 위임목사 김 성 관

이종식 창원대학교 한글학과 12.20	■ 복음사 이종식 한글학과 12.20	장진호 연세대학교 한글학과 12.20	김익환 세종대학교 영양학과 12.20	장 훈 12.20	이희상 신라대학교 강령학과 11.27
황의근 12.20	양태식 유한대학 12.20	이현철 대성원 4.20	김완수 외남부 12.20	최석희 강화초 22.20	이영환 16.20
이태식 11.20	최장진 11.20	박용현 8.20	강현철 8.20	이광원 16.20	강조식 21.20
김영택 가천대학교 12.20	유효환 15.20	강근영 11.20	이재원 15.20	정민호 19.20	정민호 14.20
정경길 충주대학교 12.20	김장성 12.20	이혜원 15.20	이순식 15.20	송호복 충주대학교 12.20	송호복 충주대학교 12.20
이달호 22.20	김성현 충주대학교 12.20	김재만 12.20	김운장 12.20		
정선진 12.20	■ 여전도사	김진식 12.20	홍순재 12.20	이승주 16.20	김말식 16.20
임창식 12.20	김진성 8.20	강덕희 12.20	허문식 12.20	전은희 12.20	김갑자 12.20
서형식 12.20	김경희 11.20	이복순 11.20	류진희 17.20	임태주 17.20	강민기 22.20
김자서 전북대학교 12.20	김경서 12.20	이혜숙 11.20	홍순만 12.20	김기원 24.20	김기원 24.20
오순도 외남부 12.20	장국원 정원일 12.20	서명환 13.20	조현영 12.20	이영환 19.20	이영환 19.20
김종훈 외남부 12.20	장재구 19.20				
장철권 21.20	■ 시흥부 지도	신병식			
이호일 충주대학교 류인숙 12.20	■ 전일지자	서순성	김원식		
	■ 전일연주자	장원희	노은영		
	■ 선 교 사	송효환			